

생존자 치료 관점에서 본 쉼터 거주 내담자들의 아내 폭력 상담 사례 연구

김 광 은*

초 록

이 연구는 생존자 치료의 기본 원리가 어떻게 아내 폭력 상담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상담에는 아내 폭력으로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이 내담자로 참여하였다. 생존자 치료는 폭력 피해자의 상처보다는 이들이 갖고 있는 강점에 관심을 기울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통제 하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다. 본 연구에서 소개된 생존자 치료의 기본 원리는 안전, 역량강화, 내담자 경험의 타당화, 강점 강조, 폭력 후유증의 치료, 교육과 진로 설계이다. 이러한 원리를 5명의 아내 폭력 내담자들의 상담 사례에 적용해 보았으며 각각의 상담은 8회기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해 두 가지 제언을 하면 첫째, 가정 폭력 내담자를 수동적 피해자에서 적극적 생존자로 보려는 관점이 필요하며 둘째, 생존자 치료에서 제안하는 기본 원리들은 앞으로 가정 폭력과 관련된 교육이나 상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주제어 : 아내 폭력, 가정 폭력, 생존자 치료

I. 서론

가정 내에서 상대적으로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좀더 많이 경험하고 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역 중의 하나는 신체적, 심리적 폭력이다(김민

* 공군사관학교 사회과학처 부교수
교신저자: 김광은 (E-Mail: 9pine@hanmail.net)

예숙, 김혜경, 배인숙, 이문자, 이미혜, 정춘숙, 황경숙, 2005; Worell & Remer, 1992). 이러한 가정 폭력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개입은 심리상담 이외에 의료, 법률, 형사, 복지 등 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주제는 상담 및 심리치료 장면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여성단체나 사회복지차원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강문순, 2003; 박진아, 2000; 장연집, 1996). 우리나라에서 가정 폭력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1983년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창립되면서이다. 이 단체의 운동은 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쉼터 마련 운동으로 이어졌고, 1998년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다양한 치료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난 20여년의 기간 동안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회와 학계의 활동은 이 주제를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시켜 폭력을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보호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가정을 비롯한 여러 장면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실제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되는 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 시설도 전국에 50개로 늘어났다(여성가족부, 2005). 정희진(2004)의 지적대로 이제 여성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논의는 여성 운동가들의 손에서 실제 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상담해 주는 전문 상담가들의 역할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지금까지 가정폭력과 관련된 상담은 주로 여성단체 및 이와 관련된 부설 상담소에 종사하면서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100시간의 상담 교육을 받은 상담원들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현실은 일차적인 위기개입이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있으나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상담원들의 훈련 배경이나 경험 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안귀여루, 2002; 여성가족부, 2005).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정폭력 상담의 이러한 현실에 바탕을 두고 가정폭력 내담자들을 돕는 대안 이론으로 생존자치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생존자치료는 가정폭력 상담의 강력한 이론적 토대가 되는 여성주의 상담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면서 실제 폭력으로 인해 내담자들이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증상을 심리장애의 하나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이론을 폭력 피해 내담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으려면 상담자가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음은 물론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전문적인 훈련과 경험이 밑받침 되어야 한다. 생존자치료의 이러한 특성은 전통적인 상담전문가들에게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도록 요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위기개입차원에서 실시된 가정폭력 상담의 질적인 수준을 치료적인 수준까지 심화시켜야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존자치료의 기본 개념 소개와 함께 실제 가정폭력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에 이러한 원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 폭력의 여러 유형 중 아내 폭력 피해자들의 상담 사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정희진(2004)이 1983년부터 1999년까지 아내폭력에 대해 이루어진 31개의 조사를 개관한 것에 따르면 조사 대상에 따라 아내 폭력 경험율은 31%에서 61%까지 나타나고 있어 그 어떤 폭력 유형보다 일차적인 관심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점은 생존자치료의 한 축을 이루는 여성주의상담이론이 아직 상담 전문가 집단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틀에서 보면 내담자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실제 이루어지는 상담 과정, 그리고 상담 성과를 평가하는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는 생존자치료 원리를 적용한 사례 분석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특성이면서 동시에 갖고 있는 한계는 새로운 상담 이론의 발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쳐야할 단계로 보여 진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정 폭력 상담이론의 하나로 생존자치료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실제 이 원리에 따라 상담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한 본 연구의 시도는 그 어느 때 보다 가정 폭력 내담자를 돕는 상담 영역에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뿐더러 실제 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내담자들에게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II. 생존자 치료

1. 이론적 토대

생존자 치료(survivor therapy)는 대부분 남성에게 의해 행해진 외상(trauma)의 희생자를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료적 접근으로 지난 20년간 가정 폭력, 성폭력과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치유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다(Walker, 2000). 이 치료는 여성주의 상담 및 심리 치료 이론과 외상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치료 기법은 양 이론에서 사용하는 것과 전통적인 상담 및 치료에서 사용되는 기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생존자 치료의 핵심은 폭력 희생자의 상처보다는 그들의 강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둔다.

생존자 치료의 근간이 되는 두 가지 이론의 기본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여성주의 심리 치료 이론은 여성들이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개인 내적인 요소보다는 사회, 정치적인 맥락에서 재조명한다(강문순, 2003; 김민예숙 등 2005; 장연집, 1996; Thurston, Corey, & Scott, 1998; Worell et al. 1992). 이 이론은 개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 문화를 포괄한 정치적인 함의를 띠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나 폭력 피해자의 개인적인 특성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 보다는 여성에 대한 통제 수단의 하나로 폭력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문화적인 관습이나 정치적인 힘의 역학관계의 차원에서 바라본다. 상담과정에서도 내담자의 모든 문제를 알고 해결할 수 있는 권위적인 상담자와 수동적인 내담자의 관계보다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힘을 공유하는 평등한 관계를 중요시한다. 이러한 원리들은 실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에게 사회 문화적인 압력에 순응하기 보다는 새로운 대안과 선택에 더 비중을 두도록 하며,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상호 목표 설정, 상담자의 적절한 자기 노출, 여성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사회문화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존자치료의 또 다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외상이론은 1970년대 베트남

전에 참가했던 병사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연구하면서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들에게 붙여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주로 남성의 의해 발생한 외상(예: 강간, 아동학대, 근친강간, 성폭력, 은행 강도)이나 자연 재해(예: 지진, 허리케인, 비행기 사고, 방화 등)로 인한 피해자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김순진, 김환, 2000; Peterson, Prout, & Schwarz, 1991).

우리나라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다룬 연구들은 전쟁후 경험하는 증상과 관련된 것(정혜경, 정문용, 정용진, 1996)과 삼풍사고 생존자들에 관한 것(김승태, 김병로, 홍경수, 정유숙, 유범희, 김도관, 1997), 교통사고 환자들의 후유증에 관한 것(이선미, 김정희, 2002)이 있으며,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겪는 신체적, 심리적 증상 및 자활 동기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지어 살펴본 연구들(김현선, 2002; 이기영, 2005)이 있다. 가정폭력과 연관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관심은 만성적인 가정 폭력으로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처음으로 적용한 판결이 보도되면서(한겨레, 2005) 더욱 커지게 되었다.

가정 폭력으로 인한 피해 여성의 정신건강의 발병률은 조사한 연구(김선아, 김소야자, 남경아, 박정화, 이현화, 2003, 재인용)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80%로 가장 많았고, 우울증 10%, 정신신체장애 4%, 적응장애 2%, 만성 정신분열증이 2%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실시한 역학 조사에서 매 맞는 여성 중 63%가 우울증을 나타냈고, 40%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였다(김선아 등, 2003, 재인용). 이러한 외상 이론은 폭력 피해 여성들이 나타내는 신체적, 심리적 증상들이 이들 자신이 본래 갖고 있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 사건이나 환경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하며, 외상후 장애 환자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증상에 대한 치료법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2. 기본 원리

생존자 치료는 상담 목표 및 상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원리를 강조한다(Walker, 2000). 먼저 내담자의 안전(safety)이다. 여기서 안전의 개념은 물

리적인 시설이나 환경으로부터의 안전의 의미와 심리적인 안정의 의미를 모두 포괄한다. 환경적인 면이나 심리적인 면에서 내담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치료적 개입이나 교육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생존자 치료에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폭력 가해자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물리적인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자신의 폭력 경험으로 인해 수반될 수 있는 형사적, 의료적인 분쟁에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와 관련된 대처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고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한다.

역량강화(empowerment)는 내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 간다는 점에서 생존자 치료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이다. 역량강화의 기본적인 관점은 아내 폭력이 내담자 자신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배우자를 통제하고 복종시키려는 가해 남편과 이러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폭력 사건은 내담자 탓이 아니며 따라서 이로 인한 자기 비난과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폭력 이전에 한 인간으로 충분히 기능했던 자신의 본 모습을 상기시키고 폭력 상황에서도 이들을 지켜 주었던 자신의 강점을 재발견하고 더 이상 의존과 회피가 아닌 완전히 독립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내담자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함으로써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생존자 치료의 세 번째 원리는 내담자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내담자가 처한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타당화(validation)이다. 아내 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해자인 남편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내담자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남편에 대해 분노와 두려움을 느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보호하고 이끌어 주는 가장 가까운 대상이라는 점에서 남편으로부터 분리된 자신의 삶을 생각하기 어렵다.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측면에서도 많은 폭력 피해 내담자들은 자신의 삶만을 생각하고 선택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생존자 치료에서는 독립적인 삶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들에 대해 비난하기 보다는 이들이 처한 상황에서 내담자가 선택한 방식을 확인하고 인정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담자의 강점에 비중을 두는 것(emphasis on strengths) 역시 생존자 치료 원리의 하나이다. 생존자 치료는 내담자를 의학적 모델에 기반을 둔 결핍 모델(deficit model)에 근거해 보기 보다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자기 성장을 위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무한히 에너지가 열려져 있는 개방된 체제로 본다. 따라서 이 치료에서는 폭력의 희생자가 아니라 이러한 극한 경험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로서 내담자의 대처 전략에 주목한다. 치료자는 내담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긍정적인 점을 일깨워 주고 이러한 특성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장기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어 있던 여성들은 단기적인 폭력이나 폭력 경험이 없었던 여성들에 비해 자아 개념이 부정적이고 자존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김선아 등, 2003; 김순정, 2002, 이삼연, 2002). 생존자 치료에서는 이들의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내담자 개인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이들을 통제하는 가해자들의 부정적 피드백과 무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폭력 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무력하고 우울한 내담자의 모습은 상황에 의해 형성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하기 보다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내담자들의 숨겨져 있는 힘이나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실제적인 면에서 외상후 증상의 감소(reduction of PTSD symptoms)는 생존자 치료의 상담 목표이면서 원리로 작용한다. 때때로 폭력 희생자는 높은 불안 수준과 회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더 이상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외상적인 경험을 되풀이 하거나 이와 관련된 악몽으로 인해 수면 장애를 겪기도 한다. 따라서 생존자 치료에서는 PTSD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약물 치료를 병행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약물이나 술, 담배 등과 같은 물질에 의존하는 것은 내담자의 독립을 목표로 삼는 생존자치료의 기본 원리와는 배치되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약물이나 물질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교육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넓히는 것(education and expanding

alternatives)은 생존자 치료의 전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다. 생존자 치료는 학력이나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왜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남성들에 의해 폭력을 경험하는지, 폭력이 갖고 있는 사회, 문화,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내담자의 자각을 촉구한다. 이러한 반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이해 및 해결 뿐 아니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여성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자조 집단에의 참여도 권장한다. 이러한 의식화 및 계몽적인 작업을 위해 생존자 치료에서는 다양한 독서 자료 및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자립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는데 독립적인 삶을 위한 직업 준비나 취업 정보, 자산 관리 등 경제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다루어진다.

지금까지 살펴 본 생존자치료의 원리들은 아주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상담 및 심리 치료 이론에서도 얼마든지 추출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여성주의 상담 이론들의 출발이 그렇듯이 폭력 피해자인 여성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에 따라 실제 이들에 대한 상담 목표 및 과정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생존자 치료의 관점을 적용한 상담 사례를 접해 보지 못해 이러한 접근이 기존의 상담이론들의 관점에서 진행된 사례들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생존자 치료는 폭력 피해자 여성을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닌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적극적인 생존자로 본다는 점에서 이 분야 상담의 또 다른 시야를 갖게 할 것이다.

Ⅲ. 아내 폭력 상담 사례

다음 표 1은 아내 폭력 상담 사례를 내담자 특성 및 상담 과정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담자의 특성과 상담 내용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상담 사례 개요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내담자 인적사항	-30대, 고졸, 회사원	-30대, 중졸, 자영업(보조)	-50대, 국졸, 자영업(보조)	-40대, 중졸, 농업(보조)	-30대, 중졸, 전업주부
가족관계	-남편: 40대, 자영업 -자녀 1명	-남편:30대, 자영업 -자녀 2명 -시어머니	-남편:60대, 중졸, 자영업 -자녀 3명	-남편: 40대, 중졸, 농업 -자녀 3명 -시어머니	-남편: 40대, 실직(운수업) -자녀 4명 (초혼 1명, 전처소생 2명, 현 결혼 1명)
결혼(동거) 상태 및 기간	재혼, 3년	초혼, 14년	초혼, 30년	초혼 25년	재혼, 3년
폭력유형	심리·언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심리·언어적 폭력, 성폭력	신체적 폭력, 심리·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심리·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심리·언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쉼터 거주 기간	3개월	2개월	4개월	4개월	2개월
내담자의 주 상담욕구	결혼상태에 대한 의사결정	심리적 안정	결혼상태에 대한 의사결정 심리적 안정	결혼상태에 대한 의사결정	취업 정보 및 안내 심리적 안정
공통	심리적 안정, 내담자 경험의 타당화, 강점 발견 및 인식, 진로 설계, 폭력 후유증 치료				
상담 목표 개별	부부관계에서 여성 역할에 대한 탐색 및 통찰	재위기 시 대처 방법 모색	결혼 유지 또는 이혼 후 생활에 대한 대안 검토	결혼 유지 또는 이혼 후 생활에 대한 대안 검토	양육 태도 점검 및 교육
상담 과정	본 상담 8회 추수 상담 1회	본 상담 8회 추수상담 1회	본 상담 8회 추수 상담1회	본 상담 8회 추수 상담 1회	본 상담 8회
상담 성과	부부관계에 대한 현실적 통찰	심리적 안정 지원세력 확보	부부관계 재 조망 및 협상 전략 습득	강점 확인 및 진로설계	생계 정보 취득 양육태도 재 조망
내담자의 현 상태 (06. 1월 기준)	별거, 재판이혼 소송 중	가정 복귀	가정 복귀	다른 쉼터로 이주 재판 이혼 소송 중	모자보호시설 이주 예정

1. 내담자

본 상담 사례에 등장하는 5명의 내담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 면에서는 30대가 3명, 40대 1명, 50대 1명이었다. 공식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은 한 명이었지만 내용상 세 명은 실제 남편의 일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보조자로서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명시했다. 내담자와 내담자의 남편의 학력은 중졸이 가장 많았으며, 내담자 중 세 명은 초혼이고 나머지 두 명은 재혼한 상태였다. 내담자들의 결혼 기간은 3년에서 30년까지 다양하였으며, 이들이 경험 한 폭력은 신체적인 면 이외에 심리, 언어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 그리고 성폭력까지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쉼터에 머문 기간은 2개월에서 4개월이었다.

2. 상담자

상담을 진행한 상담자는 상담심리학 전공의 박사학위와 상담심리사 1급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평소 실존주의 상담 이론을 근간으로 여러 상담 기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정 폭력 관련 상담 경험은 1996년부터 C 지역 여성의 전화 활동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1999년 한국 상담심리학회 월례회에서 아내 폭력에 관한 상담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가정 폭력과 관련된 피해자 및 가해자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에 관여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인용된 사례는 여성주의와 외상이론을 통합한 생존자 치료 관점에서 상담을 진행하였다.

3. 상담 사례 수집

아내 폭력 상담 사례는 C 지역 쉼터에 아내 폭력으로 입소한 사람들에게서 수집된 것이다. 아내 폭력 내담자들에 대한 상담은 '로또 복권 지원 사업'의 하나로 쉼터 시설 거주자 중 연 4명에 한해 외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성 발전 지원금이 제공되면서 이루어졌다. 이 기금의 지원으로 C 지역에서는 본 연구자에게 2004년과 2005년에 각 4명씩 총 8명에 대한 개별 상담이 의뢰되었다. 상담을 받는 내담자의 선정은 쉼터 관리자에 의해 개

인 상담을 받을만한 심리적 준비가 이루어졌거나 전문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진 사람을 우선하여 이루어졌고, 각 상담의 회기가 8회기로 제한된 것은 개인 상담의 경우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있는 최대 회기가 8회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다섯 개의 사례는 연구 목적으로 상담 내용이 공개되어도 좋다는 내담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이며,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다섯 번째 사례를 제외한 네 사례의 내담자들에게는 상담 종결 후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경과된 후 전화나 직접 대면을 통해 각 1회씩의 추수상담이 이루어졌다.

4. 상담 내용

진행된 상담 내용을 생존자 치료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상담 경위 및 동기, 주 호소 문제와 관련된 내담자 배경, 내담자의 강점 순으로 정리였다.

1) 사례 1

(1) 상담 경위 및 동기

내담자가 몸이 아파 시집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이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폭력 후 남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C지역 여성의 전화에 상담을 신청해 이 기관의 연계로 8개월 된 아들과 같이 쉼터에 입소하였다. 이 내담자는 첫 번째 결혼에서 남편의 외도로 3년간의 재판 끝에 이혼한 경험이 있어 현재 결혼 관계도 이혼으로 종식되는 것에 대해 큰 불안을 갖고 있다. 쉼터에 와 있는 다른 피해자들에 비해 남편의 폭력 강도나 빈도는 심하지 않은 편이나 현 남편과 가치관, 생활방식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한 편이어서 전반적인 결혼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내담자는 두 번의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현재 결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다.

(2) 호소 문제와 관련된 내담자 배경

원 가족에서 폭력을 경험한 적은 없으며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 봉사하는 삶에 대해 가치를 두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가 강력하게 내재되어 있다. 때로 내담자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욕구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현실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구원자나 봉사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첫 번째 결혼에서 내담자보다 사회경제적인 위치가 낮은 남자를 선택했으며 두 번째 결혼에서도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결혼을 결심하였다.

(3) 내담자 강점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있어 경제적 자립에는 어려움이 없고, 아들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강하며, 친정 언니나 동생이 심리적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사례 2

(1) 상담 경위 및 동기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채팅을 주고받다가 이 장면이 목격되어 운영하는 가게(호프집)에서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당하였으며 당시 종업원들이 경찰에 신고해 1366 임시 보호시설을 거쳐 쉼터에 입소하였다. 쉼터 입소 후 안면 골절 수술을 위해 4주간 입원하였으며 퇴원 후 상담을 진행하는 도중 남편의 압력과 회유로 인해 집으로 복귀했고 이후 4회기는 쉼터를 퇴소해 집에서 거주 하면서 이루어졌다. 상담 신청 시 극도로 두려운 상황에서 물리적, 심리적 안정을 필요로 했으며 남편을 벗어날 수 없는 내담자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들어 주기를 원했다.

(2) 호소문제와 관련된 내담자 배경

어머니가 둘째 부인으로 어린 시절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중학교 졸업 후 호프집 등에서 일하다 술집을 경영하는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동네가 알아주는 깡패 출신으로 결혼 후 내내 사업은 부인에게 일임한 채 폭력, 외도 등을 해 왔다. 10여년 전 집을 가출했을 때 전국의 깡패 조직을 동원해 결국 찾아냈다. 그 당시 이 사람한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는 것 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고 그 이후는 사업을 확장하고 돈을 버는 데 신경을 집중했다. 그러나 작년 임신했던 아이가 유산된 후 남편이 보였던 태도에 절망감이 깊어졌으며 우연히 경영하는 술집에서 알게 된 남자와 채팅을 하게 되었고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해 주는 이 남자와의 관계에서 많은 심리적 안정을 얻었다.

(3) 내담자 강점

심리, 사회적인 면에서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능력이 있고,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사업(술집)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대처 능력이 있다. 자녀들에게 열성적이며(학교 자모회장), 시어머니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 사례 3

(1) 상담 경위 및 동기

대장암 수술 후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양파가 썩었다는 이유로 아직 회복되지 않은 배를 차는 등 신체적인 폭력을 가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지역 여성의 전화에 상담 한 후 쉼터에 입소하게 되었다. 상담 신청 시 30년간 지속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만성적인 부부갈등의 원인이 내게도 있는지는 않은지 알고 싶다고 하였다.

(2) 호소문제와 관련된 내담자 배경

내담자는 19살 때 내담자 고향에 파견되어 온 현 남편의 밥을 해주다가 유부남인 줄 모르고 거의 강간에 가깝게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몸을 버렸기 때문에 결혼해야 한다고 내담자 뿐 아니라 가족들도 생각하여 결혼하게 되었다. 막상 결혼하려고 보니 남편은 아직 전처와의 이혼도 정리되지 않은 상

태여서 동거하면서 지내다가 전처소생의 딸과 둘 사이에서 낳은 자녀 둘과 30년을 살아왔다. 남편은 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못 견뎌 자살하는 바람에 어릴 때부터 구박을 많이 받고 성장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자신은 여자들과 바람도 많이 피고 말썽도 많이 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과 아이들한테는 매우 엄격하고 뭔가 맘에 들지 않을 때 폭력을 심하게 행사 했다. 내담자 역시 어린시절 너무 어렵게 자라 자신이 원하던 공부를 할 수 없었지만 사람은 없을수록 남에게 반듯하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책을 많이 읽으려 했고 이런 내담자의 성향은 은근히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과 어울리는 사람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게 한 것 같다. 그리고 남편이 바람을 많이 피워서 그런지 여자가 바람을 핀다고 하면 더러워서 상대하고 싶지 않고 이런 점을 얘기하다가 쉽터 거주하고 있는 동안 내담자 보다 어린 사람들과 감정적인 갈등을 많이 겪었다.

(3) 내담자 강점

독서를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 하고, 내담자의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간병인, 도배사 등 여러 기능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직업 경험(화장품 외판원, 동장, 도배사)이 있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4) 사례 4

(1) 상담 경위 및 동기

남편은 완벽한 성향에다 3년 전부터 우울증을 겪고 있어 짜증이 더 심해졌다. 우연히 등산하다 만난 남자와 내담자와의 관계를 오해하여 3주 입원할 만큼 심하게 때렸고 당시 구타당한 사진을 딸이 찍어주었다는 이유로 다시 폭력을 가해 1366을 통해 쉽터에 입소했다. 현재 재판 이혼을 신청한 상태이지만 이 결혼을 종식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아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였다.

(2) 호소문제와 관련된 내담자 배경

내담자는 버스 안내양으로 일하던 중 기사였던 남편을 만나 첫 아이를 낳고 나서 결혼을 하였다. 연애할 때도 남편이 술 먹고 기숙사에 와 행패를 부리곤 하였으나 내담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결혼 내내 지나친 음주와 극도의 완벽성, 권위적인 면 때문에 내내 힘들었으나 내담자와 남편의 노력에 의해 10여 년 전부터 시작한 농장에서 나온 과일들이 출하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윤택해졌다. 그러던 중 3년 전 내담자의 언니가 운영하던 사채에 남편이 돈을 날리게 된 후 우울증 약을 복용하게 되었고 내담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행패가 더 심해졌다. 남편들의 형제는 모두 음주, 폭행 등으로 감옥에 가 있거나 사고를 많이 일으켰으며 현재 동서도 시 동생의 폭행으로 쉼터에 거주하고 있다.

(3) 내담자 강점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성격이 낙천적이다. 예를 들어 남편한테 맞고도 하루 밤 자고 밖에 나가 일하면 금세 잊어버리는 편이며 현재 농장도 80%이상은 내담자가 일꾼 것이라고 한다.

5) 사례 5

(1) 상담 경위 및 동기

내담자와 남편은 둘 다 재혼으로 지난 1년간 남편이 실직상태였다. 남편은 전처가 바람이 나 이혼을 했기 때문에 내담자가 밖에 나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전처소생의 아들 둘이 전처에게 가고 난 후 남편의 음주와 폭력이 심해졌으며 이날도 남편의 폭력을 피해 경찰서로 도망을 갔는데 내담자와 딸이 사라진 것을 보고 남편이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하였다. 쉼터 입소 후 남편의 장례가 내담자도 없이 전처에 의해 치러졌던 얘기를 들었다. 남편 죽음에 대해서는 안됐다는 느낌도 있지만 시원한 감도 있으며 이 일 이후 몰라라 하는 남편 가족과 친정 식구들에게서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 더 힘들다. 상담을 통해 앞으로 딸과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생계에 관한 정보 및 지원을 받고 싶다.

(2) 호소문제와 관련된 내담자 배경

내담자는 중학교 졸업 후 집안 살림을 돕고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미성사 생활을 하였다. 이 생활이 지겨워 결혼을 하였는데 남편의 폭력이 너무 심해 이혼을 하였다. 두 번째 결혼에서는 1년을 지켜보다가 사람이 성실한 것 같아 결혼 하였는데 이 사람 역시 실직 후 점차 난폭한 행동을 보였으며 내담자를 집에만 가두는 바람에 몸무게가 결혼 전보다 30킬로그램이나 늘었다. 이 남편은 비록 내담자를 때리고 힘들게 했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담자의 수발을 너무나 정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 역시 갖고 있다. 오히려 서운한 것은 내담자의 처지가 이렇게 되고 보니 내담자가 공부시켰던 동생이나 오빠는 혹시 피해가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이고 친정아버지도 내담자가 돈 벌어서 줄 때는 자식 취급하다가 이후에는 보려고 하지 않는 점이다. 지금 쉼터에서 가장 답답한 것은 술, 담배를 할 수 없다는 것,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3) 내담자 강점

취업을 할 수 있는 미성 기술이 있다는 점과 딸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는 점이다. 내담자의 행동에 대한 쉼터 관리자들의 얘기는 듣지 않다가도 딸의 양육 방식에 대한 조언은 열심히 듣고 수용하며 상담 과정에서도 딸을 잘 키워보려는 의지를 많이 나타냈다. 비교적 낙천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 과거에 대한 원망보다는 현재와 미래 중심으로 살아보려는 의지가 있다.

IV. 생존자 치료 원리의 적용

위에서 살펴본 아내 폭력에 관한 다섯 가지 상담 사례에 생존자 치료의 관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존자 치료의 주요 원리에 따라 살펴보기로 하자.

1. 안전

개인 상담을 시작한 다섯 명의 내담자는 간혹 쉼터에서 내담자의 폭력 상황과 유사한 고함 소리가 들리거나 언쟁이 벌어지면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

다가도 비교적 환경적인 면에서 안전이 보장되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들이 살고 있는 쉼터 생활에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회복해 갔다. 다만 사례 2의 내담자는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였고 상담 진행 도중 쉼터에서 퇴소하여 여전히 가해자 남편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많은 집으로 복귀한 상태여서 다른 내담자들보다 이 내담자에게는 심리적 안정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사례 2의 내담자 남편에게 공공 기관에서 후원하는 전문가에게 부인이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이후 폭력 사용을 억제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는데, 내담자 말에 의하면 이제 깡패들의 세계에서 1366이나 여성의 전화와 같은 기관에 가정 폭력이 노출되면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상담’의 의미는 단순한 심리적 안정을 넘어 가해자인 남편에게 사회적인 면에서 내담자를 보호하는 기관이나 대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든든한 안전망의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사례 5의 내담자는 쉼터 입소 직전 남편이 자살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요구보다는 위기관리 차원에서 쉼터 관리자들에 의해 상담이 의뢰된 경우이다. 그런데 이 내담자가 다른 내담자들보다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이 더 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가해자인 남편이 언제 찾아낼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다른 내담자들에 비해 이 내담자는 안전의 문제에서 아주 자유로워졌다고 느꼈으며 상담 시간에도 불안이나 우울 같은 정서적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진로나 취업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어 주기 원했다. 이 내담자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종종 상담을 위해 허락된 외출시간을 넘겨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결혼 기간이 길지 않고 폭력 경험이 심하지 않은 내담자는 상담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결혼 기간이 길고 만성적인 폭력을 경험한 내담자는 우선 집에서 떨어져 나와 익숙하지 않은 쉼터 생활에 대해 더 심하게 불안과 불편을 경험하며 가해자인 남편을 포함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 수준도 높은 편이다. 사례 3의 내담자가 이에 해당되는데 남편만 없다면 그런대로 익숙하고 편안한 집과 달리 내담자보다 대부분 나이가 어리고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쉼터 환경에 대해 상담 초기 불면증을 포함한 많은 불안과 불편을 호소하였다. 이 내담자의 경우 상담이 진행되면서 남편과의 관계

를 재 조망하고 쉼터 구성원들과 잘 어울릴 수 없었던 원인을 찾아가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서서히 회복해 갔지만 오랜 결혼 기간동안 혼자 폭력에 노출된 채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떨어진 내담자들에게 쉼터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인간관계는 이들에게 안전감보다는 또 다른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역량강화

본 상담 사례의 내담자들은 사례 1과 사례 3의 내담자를 제외하고 심리적 측면에서 있는 그대로의 내담자를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원 가족 경험이나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고 결혼 과정에서도 서로의 의사가 반영된 평등한 관계에서 출발 했다고보다는 일방적인 강제나(사례 2, 사례 3, 사례 4), 구원자의 역할(사례 1)로 시작되는 특징을 보인다. 사례 2의 내담자는 합법적이지 않은 부부관계에서 태어나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사례 4의 내담자는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생활을 책임져야 했다. 사례 5의 내담자는 부모님이 살아 계시긴 하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집안의 맏딸로써 중학교 졸업 이후부터 동생들의 학비 조달 및 가정 경제를 부분적으로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았다. 따라서 이 세 내담자들에게서 결혼의 주 동기는 원 가족이 주는 심리적,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하고는 측면이 많았으며 내담자의 배우자에게서는 원 가족에서 채워지지 못한 인정과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례 4의 내담자는 결혼 이전 연애 시에도 현 배우자인 파트너의 폭력이 심했는데 오히려 이러한 점을 문제 삼기보다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를 독점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이들의 원 가족 배경이나 결혼 과정이 원만하지 않았음에도 서구에서 보고 되고 있는 사례(Walker, 2000)와는 다르게 이들 중 단 한 명도 남편의 폭력을 내담자의 탓으로 돌려 스스로를 무력화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의 경우 부부갈등의 원인 제공 및 대처 방법 면에서 내담자들에게도 일정한 책임 및 미성숙함이 있었다고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폭력을 정당화 할 만큼 내담자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하고 있지는 않았다. 비록 가해자인 남편의

형사적 처벌 및 재판 과정에서 시집 식구들의 태도가 달라지긴 했지만 사례 2와 4의 내담자는 평소 남편이 폭력을 행사할 때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집 식구들과 공동 대응할 정도로 폭력의 원인이 내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남편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인정받고 있었다. 내담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상담 과정에서 폭력 행동의 원인이 내담자도 아니라 가해자인 남편 및 이러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에 있다는 인식의 재확인 은 이들로 하여금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아내 폭력 상담 사례 내담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면 실제적인 면에서 경제생활을 주도하고 있거나 해 본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내담자는 실제의 소유주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용 면에서 생업을 맡아 하고 있었으며(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1의 내담자 역시 결혼 전부터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경제적인 생활 능력이 있고 직업을 가졌보았거나 이로 인해 직업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는 점은 이들의 역량강화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능력을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전통적인 성역할 분업에서 부인의 역할에다 남편의 역할까지 이중으로 떠맡는, 그러면서도 의무만 있고 권리는 행사하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재판 이혼의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내담자들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역할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판례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것조차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들의 직업 경험과 생활 능력이 궁극적인 독립에 큰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인지적으로 재구조화하였으며 자신이 기여한 바에 대한 적절한 요구는 당연한 권리라는 점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 사례 3의 내담자는 집으로 복귀하는 조건으로 남편과의 협상하에 재산의 일부를 자기 명의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현재 재판 이혼 소송 중인 사례 4의 내담자도 약간의 위자료만으로 합의를 보려고 했던 처음의 계획을 변경시켜 본인의 기여분 만큼 위자료를 청구해 놓은 상태이다.

8회라는 제한된 상담 시간 때문에 여러 가지 역경에 대처해 온 이들의 적

응 능력과 숨겨져 있는 힘까지 충분히 탐색할 수는 없었지만 남편과의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그런대로 괜찮게 기능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의 재확인 이후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기타 사례 5의 내담자는 집안에만 갇혀 지낸 대가로 얻은 과도한 몸무게를 줄이는 것을 스스로 목표로 삼았는데 이 역시 주체적인 삶으로의 출발을 위해 과거의 부담을 덜어낸다는 점에서 이 내담자의 선택을 적극 지지해 주었다.

역량강화라는 면에서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상담에 참여한 내담자 전부가, 그리고 비록 상담의 기회는 갖지 못했지만 아내 폭력으로 입소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신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담자들처럼 아픔을 겪은 여성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싶고 자립하게 되면 적은 돈이라도 꼭 후원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개인 상담에 참여했던 내담자들은 여러 입소자 가운데 소수인 자신들만 개인 상담을 받는 기회를 갖은 것에 대해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혜택을 어떠한 형태로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나 이러한 여성들을 돕는 단체나 기관에 보답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들의 반응은 이제 자신들의 문제를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여성주의와 생존자 치료에서 말하는 자매애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3. 타당화

8회의 상담이 종결될 때 까지 가해자인 남편이 사망한 사례 5의 내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내담자들은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확실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상담이 종결된 후 6개월에서 1년이 경과한 뒤 진행된 추수 상담에서 두 명의 내담자는 가정으로 복귀하였고(사례 2, 3), 두 명의 내담자는 재판 이혼 과정 중이었다(사례1, 4). 이러한 현실에서 볼 수 있듯이 아내 폭력의 많은 피해자들은 내담자를 둘러싼 환경을 단기간 내에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고 폭력 가해자인 남편에 대해서도 복잡한 느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존자 치료에서 타당화란 내담자가 처한 현실과 그 현실에서 경험하는

내담자의 감정, 사고, 행동 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내담자들의 경우를 살펴보자. 사례 1의 내담자는 오랜 신앙생활에서 비롯된 일종의 구원 환상을 가지고 결혼을 한 경우인데 이 내담자는 동일한 패턴을 두 번의 결혼에서 반복하고 있었다. 이 내담자는 자신이 천사처럼 잘 해 주면 남편들은 이 못지않게 내담자를 존중하고 따듯하게 대접해 주리라 생각했지만 첫 번째 남편은 외도로, 두 번째 남편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내담자가 다가서려 하면 폭력으로 응대하였다. 그럼에도 이 내담자는 상담이 종결될 때 까지 자신이 좀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잘 해 준다면 남편이 달라지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고 두 번의 이혼 경력이 줄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압력에 대해 심한 부담감을 느꼈다. 상담 과정에서 이러한 내담자의 혼란스런 느낌 및 생각에 바탕이 되고 있는 신앙에 대해 언급하기 보다는 이러한 믿음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 즉 교우들과의 네트워크나 영적인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내담자에게 결혼의 현실적인 여러 요소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설득하려고 하기 보다는 내담자가 겪고 있는 가정 경제 및 육아의 어려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 2의 내담자는 무자비하고 돌봄을 모르는 남편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내담자 표현에 의하면 정말 조건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고 따듯하게 반응해 주는 다른 남자에게 자연히 마음이 갈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쉼터에서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빈도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이 남자와 채팅을 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남편이 알면 당장 내담자를 죽일 것이라고 하였다. 이 내담자는 상담 당시 이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내담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관계를 끊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행해진 추수 상담에서 이 남자와 채팅을 비롯한 모든 관계는 정리하였으며 아이들 뒷바라지와 학교 일을 돕는 것으로 관심을 전환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상담 시 항상 내담자의 남편이 감시를 위해 동반하였기 때문에 내담자 남편의 재 폭력 가능성과 내담자 남편에 대한 윤리적인 면에서 채팅 중단을 강력하게 권유하고 싶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내담자의 통제력에 대한 믿음과 상담자의 일방적 권유에 의한 채팅 중단은 내담자의

독립적 선택이라는 생존주의 치료 원칙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었다.

사례 5의 내담자 역시 폭력 가해자인 죽은 남편에 대해 상당히 복잡한 느낌을 갖고 있었다. 상담 초기에는 가해자이기는 하나 가버린 남편에 대해 전혀 애도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 일로 자신이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분노만을 표출하였다. 상담이 진행되면서 실직 이전에는 한때 내담자의 남편도 성실하고 친절한 가장이었으며 아이들의 아빠로 다정한 존재였음을 떠올렸다. 그렇다고 남편이 술만 마시면 세상을 원망하며 자기를 때렸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휴대폰에 남아 있는 아빠의 얼굴을 보며 아빠의 안부를 궁금해 하는 딸에게는 따뜻한 이미지로 아빠를 기억하게 하고 싶다고 하였다.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가 버린 남편에 대해 갖는 여러 복잡한 느낌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상담의 초점은 남아 있는 내담자 자신과 딸이 좀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두었다.

4. 강점 강조

생존자치료는 폭력 피해자들의 결핍된 측면보다 내담자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도록 이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강점을 발견하고 키워 나가는 데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내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한동안 인정받지 못했거나 잊어버리고 있었던 내담자의 강점을 발견하고 재확인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사례 1의 내담자는 비록 남편 및 결혼 생활에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배려와 봉사를 중요시 여기는 내담자의 특성이 자녀 양육과 이후 삶을 계획하는 데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으며, 사례 2의 내담자도 남편 대신 실제적으로 사업을 맡아 하면서 키워진 경영 전략과 종업원을 관리하는 능력을 내담자의 강점으로 재확인하였다. 또한 가정형편상 자신은 중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지만 끊임없는 독서와 다양한 취미 생활을 추구해온 내담자의 모습을 통해 자신에게 지적인 욕구와 갈망이 상당히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담 후 생활이 안정되면 방송

대학이나 사이버 대학 등 자신의 여건에 맞게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는 욕구를 피력했다.

사례 3의 내담자 역시 쉼터에 있는 동안 마음 놓고 독서를 할 수 있었던 것을 가장 좋은 경험으로 회상하였는데 이 내담자 역시 공식적인 학교에서의 배움은 짧았지만 다양한 책 읽기를 통해 그나마 생활에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내담자는 감정이 풍부하고 이러한 감정을 전달하는 언어적 능력이 탁월하였는데 기회가 된다면 동화 구연을 본격적으로 배워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로 봉사하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냈다.

사례 4의 내담자는 낙천적인 성격과 건강한 체력을 무엇보다 강점으로 꼽을 수 있다. 비록 남편으로부터는 이러한 특성이 꼼꼼하지 못하고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비쳐져 구타를 당하는 또 다른 이유로 작용했지만 내담자 표현에 의하면 이러한 특성이 없었다면 벌써 목을 매거나 말라 죽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사례 5의 내담자는 다소 충동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한 자신의 성격 특성이 딸을 양육하는데 부정적인 방식으로 영향 미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해 하였다. 그러나 이 내담자 역시 삶을 단순 명료하게 바라보는 시각과 잠시 묻어 두었지만 이 내담자 안에 내재해 있는 강인한 생활력은 자신의 삶이나 이후 자녀 양육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여 상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5. 폭력 후유증 치료

아내 폭력 피해자들은 폭력으로 인한 골절상이나 타박상, 고막 파열, 치아 손상, 두통, 소화기 장애 같은 신체적인 증상뿐 아니라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우울하며 쉽게 흥분하거나 격하게 우는 등의 다양한 심리적 증상을 나타낸다. 다음 표 2는 개인 상담을 시작할 때 내담자들의 심리적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했던 다섯 명 내담자들의 MMPI 결과이다.

<표 2> 아내 폭력 내담자들의 MMPI 영역별 점수

	L	F	K	Hs	D	Hy	Pd	Mf	Pa	Pt	Sc	Ma	Si
사례 1	47	47	60	77	65	74	63	54	68	69	66	57	39
사례 2	38	72	45	67	46	84	74	41	82	74	76	84	41
사례 3	51	58	63	54	60	53	75	40	56	64	62	52	46
사례 4	46	54	63	47	50	50	57	56	50	55	31	40	54
사례 5	42	51	47	67	66	62	67	50	52	70	67	52	47
M	44.8	56.4	55.6	62.4	57.4	64.6	67.2	48.2	61.6	66.4	60.4	57	45.4
SD	4.96	9.60	8.87	11.86	8.98	14.31	7.56	7.36	13.37	7.30	17.21	16.34	5.85

내담자들에 따라 영역 별 점수가 상승한 영역은 다소 다르나 전체적으로 볼 때 분노와 대인 관계 불안을 나타내 주는 4번과 7번 척도의 점수가 높은 편이다. 실제 사례 1의 내담자는 신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 매우 예민하고 불안한 반응을 보였고 상담 과정 중에 빈번하게 울음을 터트렸다. 사례 2와 사례 3의 내담자는 폭력으로 인한 골절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였을 뿐 아니라 상담 기간 내내 불면증과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례적으로 사례 4의 내담자는 8번 척도가 낮은 것 외에 특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실제 내담자가 문제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다소 순응적이고 지나치게 세상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내담자 특성과 관련 있는 것 같다. 사례 5의 내담자 역시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과 만성적인 폭력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들이 보이는 2, 4, 7, 8 척도의 상승이 눈에 띈다.

이렇게 아내 폭력 내담자들이 눈으로 관찰할 수 있게 또는 잠재적인 면에서 많은 후유증이 예상되에도 불구하고 8회라는 제한된 상담 회기에서 이러한 증상들을 충분히 다루고 치료하기는 어려웠다. 다행히 일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진행된 추수 상담에서 사례 1의 내담자는 다시 직장에 복귀하고 별거하면서 남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불안하고 두려웠던 예전에 비해 심리적 안정을 많이 찾았으며 재판이혼에서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더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하였다.

사례 2의 내담자 역시 추수 상담에서 더 이상 남편과 사람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복용했던 수면제나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례 3의 내담자는 남편의 폭력 뿐 아니라 대장암 수술의 추후 경과 때문에 신체적 건강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많았는데 얼마 전 담당 의사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다섯 명의 내담자 중 폭력의 후유증이 가장 염려되는 대상은 사례 5의 내담자이다. 이 내담자는 남편의 사망 이후 충분한 애도 기간을 갖지 못했고 주변에 심리적 지원 세력도 없을뿐더러 자신의 스트레스를 주로 술과 담배 같은 물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내담자의 경우 사회 경제적면에서도 다른 내담자들에 비해 자원이 많이 부족한 편이어서 쉼터 퇴소 후 경제적인 상황을 비롯한 제반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뒤늦게 만성적인 폭력 경험의 반복적인 회상과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후유증을 심각하게 앓을 가능성이 있다.

6. 교육과 진로 설계

본 연구에 참여했던 내담자들은 연구자와 함께 한 개인 상담 이외에도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분노 조절 프로그램, 요가, 도자기 만들기, 나를 찾는 여행 등 다양한 집단 활동에 참여하였고 쉼터에 비치되어 있는 서적을 통해 다양한 책 읽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러한 제반 활동을 통해 남편이 가하는 폭력이 단순히 남편 개인의 심리적 이상성에서만 기인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건강한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개인 상담 시간에 어떤 목적을 염두에 두고 내담자에게 직접적인 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반 교육과 활동, 그리고 개인 상담을 병행하면서 경험하는 내담자의 생각과 느낌을 주체적으로 되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졌다.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각각의 내담자들이 내담자들의 욕구와 능력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쉼터 퇴소 후의 생활, 장기적으로는 10년이나 20년 뒤에 예상되는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쉼터 퇴소 직후의 생활에만 주로 골몰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사례 4의 내담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내담자의 나머지 반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좀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고 싶다고 하였다. 상담 종료 후 이 내담자는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쉼터로 이주를 희망하여 옮겨갔으며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추수 상담에서 여전히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쉼터에 머물면서 다양한 사무 능력을 익히고 있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위해 재판 이혼의 마지막 협상 카드로 부부 상담 제의를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하였다.

사례 5의 내담자는 원 부모에게서 받지 못한 애정을 내담자의 딸에게 지나칠 정도로 퍼붓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면 얼마 남지 않은 생활비를 모두 털어 아이의 코트를 산다든지 쉼터에 와 있는 다른 아이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담자의 딸의 식사나 놀이에만 열중하는 태도를 보여 종종 쉼터의 다른 구성원들의 빈축을 샀다. 이렇게 지나친 애정 반응을 보이다가도 본인의 기분이 가라앉으면 아이에 대해 심한 꾸중과 짜증을 내는 일관되지 못한 양육 태도를 보였다.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의 이러한 비 일관적인 양육 태도가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고 쉼터 퇴소 후 이 아이는 많은 시간을 보육시설에서 보내야 하는 현실적인 여건상 엄마와의 관계 뿐 아니라 또래들과의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지시켰다. 다행히 이 내담자는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 동안 아이에 대한 태도 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였고, 이 내담자의 자녀 역시 초기에는 쉼터에서 주선하여 다니게 된 어린이집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나타냈으나 엄마의 태도가 변화되어 감에 따라 상당히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내담자와 쉼터 관리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담 과정을 통해 모든 내담자들이 공통적으로 깨달은 한 가지가 있다면 더 이상 가정의 일시적 안정이나 아이를 생각한다는 명목만으로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현실 세계에서 이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만 알면서 느끼는 고통이 모르면서 당하는 핍박보다 이들이 삶을 좀더 주체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V. 논의

지금까지 서구에서 가정 폭력 상담에 효과적으로 알려진 생존자 치료 원리를 소개하고 이러한 원리를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아내 폭력 내담자들에 대한 상담 사례에 적용해 보았다. 생존자 치료가 아내 폭력을 포함한 가정 폭력 상담에 주는 시사점과 실제 이러한 원리를 상담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만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존자 치료는 가정 폭력 내담자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을 요구한다. 즉 이 이론에서는 폭력 경험으로 인해 무력하고 수동적으로 보이는 내담자의 모습은 폭력 경험자들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증상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이러한 점보다는 극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내담자의 강점과 대처 능력에 관심을 둔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면에서도 새로운 시각을 요구한다. 즉 이들에 대해 단순히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 제공을 넘어 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되돌아보고 이후 삶에서 스스로 통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상담이나 심리 교육, 그리고 현실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 교육이 더 활성화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생존자 치료는 이론적 기원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 뿐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에서 조망하도록 하며, 폭력으로 인해 수반되는 여러 신체적 심리적 증상들에 대해 외상 이론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측면은 내담자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각각의 내담자들이 보이는 구체적인 증상들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이론적 함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나라 아내 폭력 상담 사례에 생존자 치료의 주요 원리를 적용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 먼저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준비도나 문제의 경중에 상관없이 상담 회기가 8회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로 부부관계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기 원했던 사례 1, 3, 4의 내담자들에게는 비교적 의식적인 수준에서 생존자 치료 원리를 상담 과정에 적용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시도는 상담 종결

후 내담자의 상담 성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시간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추수 상담에서도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폭력 이외에도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의 뿌리가 깊고 폭력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8회라는 제한된 회기에서 생존자 치료의 지극히 제한된 원리만을 적용할 수 있었다. 또한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준비도가 낮고 심리사회적인 자원이 부족한 경우(사례 5)는 생존자 치료 원리를 내담자가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에 아직 어려움이 있었다.

제한된 상담 회기이외에 본 연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한계는 막상 상담 과정에서 생존자치료의 근간이 되는 두 가지 이론 중의 하나인 외상후 장애 이론에 입각하여 내담자들의 증상에 대한 사전 평가나 치료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들 수 있고, 상담 성과에 대한 평가도 내담자와 상담자의 자기 보고에 의한 주관적 해석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생존자치료 원리를 적용한 상담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치료 전후의 상담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평가 계획이 포함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평가 방법 면에서도 내담자의 자기 보고이외에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상담 성과도 검증할 수 있는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상담이론과 여성주의 상담이론, 그리고 생존자치료는 가정 폭력 피해자를 돕는 치료법으로 어떠한 강점과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연구도 계획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내 폭력을 포함한 가정 폭력의 문제는 여성운동가나 정치가들의 영역이 아니라 어렵게 만들어진 법과 시설을 기반으로 전문 심리상담가들에 의해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이슈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각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상담가들은 전통적인 심리상담의 내담자들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들의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돕는데 효과적인 이론과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실제 상담 장면에서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와 전문 상담가의 연계를 보여주는 작은 시도이다.

참고문헌

- 강문순(2003). 여성주의 상담의 원리와 전망: 내담자와 상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2004). 가정 폭력의 실태 및 상담기관 현황분석을 통한 지역상담 체계화 방안(아내 학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11~134.
- 김민예숙, 김혜경, 배인숙, 이문자, 이미혜, 정춘숙, 황경숙(2005). 왜 여성주의 상담인가: 역사, 실제, 방법론. 서울 : 한울 아카데미.
- 김선아, 김소야자, 남경아, 박정화, 이현화(2003). 가정폭력으로 쉼터에 입소한 여성의 피해실태와 정신건강, 대한간호학회지. 33(7), 981~989.
- 김순정(2002). 쉼터 여성의 학대경험과 신체심리적 건강: 쉼터 여성과 지역사회 거주 여성들과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진, 김환(2000).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서울: 학지사.
- 김승태, 김병로, 홍경수, 정유숙, 유범희, 김도관(1997). 삼풍사고 생존자들에서의 급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36(3), 475~487.
- 김재엽(1998). 한국 가정폭력 실태와 사회계층 변인과의 관계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 131~135.
- 김정란(2002). 아내 학대에 대한 부부체계적 접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선(2002).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피해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아(2000). 여성상담기관의 여성주의 상담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귀여루(2002).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가족 기능강화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2005).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실태조사(연구보고 2005~14). 서울: 여성가족부.
- 은현정, 이선미, 장광철(199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다면적 인성검사 특성, 신경정신의학. 33(2), 353~364.
- 이기영(2005). 성매매피해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자활동기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삼연(2002). 가정폭력과 부부치료, 경남지역연구.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 연구원.
- 이선미, 김정희(2002). 버스사고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 관련 요인,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1(3), 547~563.
- 장연집(1996). 여성주의 상담과 심리치료, 여성연구논총. 11(1), 5~25.
- 전철은, 현명호(2003). 심리적 피학대 여성의 수치심, 죄책감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763~776.
- 정혜경, 정문용, 정용진(1996). 전쟁관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서 Dexamethasone Suppression Test, 대한신경정신의학회. 35(6), 1459~1477.
- 정희진(2004).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가정 폭력과 여성 인권.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주명희(2003). 부부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황혜숙, 신선인(2002).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해결중심 가족치료적용사례, 사회복지연구. 23, 189~220.
- 한겨레신문 2005. 3. 18일자 (사회)기사 : 가정폭력 남편 살해 여성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첫 인정.
- Benard, G.(1987). Wife-battering: A theoretical construct and case report,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5(91). 34~43.
- Peterson, K, Prout, M., & Schwarz(1991). 신응섭, 채정민 역(199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통합적 접근. 서울: 하나의학사.
- Thruston, W. E., & Corey, J., & Scott, C.(1998). Building a feminist theoretical framework for screening of wife-battering : Key issues to be addressed,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33(3), 299~304.
- Walker, L.(2000). *Abused women and survivor therapy : A practical guide for the psychotherapist(3r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orell, J., Remer, P. (1992). *Feminist perspectives in therapy*. NY: John Wiley Sons Ltd.

A Study on Violence against Wife in the Cases of Women in Shelter with a View of Survivor Therapy

Kwangun Kim*

This study concerns how key principles of the survivor therapy can apply to the cases of violence against wife. The clients are the women in shelter. The survivor therapy focuses on the empowerment of the victims, encouraging them to live a new life under their own control with more emphasis on their strengths rather than on their injuries. The key principles of survivor therapy are safety, empowerment, validation, emphasis on strengths, healing the trauma effects, and education and planning their careers. These principles are applied for individual counseling in the five cases of the women in shelter. Eight sessions are given for each case. This study draws out two suggestions. First, a new perspective is needed in the treatment of the clients of domestic violence from passive victims to active survivors. Second, the principles mentioned above should be primary consideration in the future education and counseling in connection with domestic violence.

Key words : Violence against Wife, Domestic Violence, Survivor Therapy

* Korea Air Force Academy